

## 수산양식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 윤  
국립수산과학원  
바다목장사업단장

통영을 중심으로 한 경남은 양식 산업이 전체 경제활동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과 저비용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육종, 사료, 질병, 자동화의 4대 핵심 요소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역 특성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에 대한 양식기술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고급 품종을 발굴하여

지속적 생산이 가능토록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적 양식 방법을 탈피하여 외해수중 양식방법 등으로 개량하여 고급화, 특성화하는 방안으로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양식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양식 생산 공정의

표준화, 생산 이력시스템 구축, 유기양식 기술 개발 및 ABF (antibiotics free) 양식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통영에서는 수산물 고급화를 위한 유통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양식용 사료의 저온 보관, 수산물 가공 공장의 확충, 활어 유통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활어의 소비 확대 방안으로 콜드체인, 인터넷 쇼핑 등의 판매망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통영은 양식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심층해역 가두리 집단화 사업 추진 등 새로운 양식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류 가두리 양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역의 어류양식을 외해양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안들이 연구 개발되어지고 있다.

통영의 해양수산발전 전략은 바다목장과 사업 확대, 어항 정비 사업, 고부가 수산가공업 육성, 수산유통구조의 혁신, 타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양식의 위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어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어촌 역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그 실태 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어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 확대는 유엔 해양법 발효, 수산물 수입자유화 등으로 인해 어촌의 주요 소득 기반인 어업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업의 소득원은 부족하고 어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어촌 내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양식어업의 성장과 생산시설 보유 규모의 양극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어촌의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하고 이와 동시에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구축'의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정보 교환 및 정보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며, 어촌과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수산직불제 도입을 통해 어가 소득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어촌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환경을 포함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어촌을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차원에서 어촌계를 적극 활용하여 어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며, 어촌 스스로가 사회안전망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 일본의 도시어촌교류의 대처사례



아나세 토모유키(柳瀬知之)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정비과 수산토목전문관

▷ 북해도 시베츠지역 : 북해도 시베츠에서는 그 지역의 위생관리지역, 해수취수 지역, 가리비양육지역, 연어양육지역에서 HACCP 사업, HACCP 체험 투어 등을 추진했다. 위생관리 후 일본 시장에서 시베츠어항의 가을 연어 판매가 늘어났고, 품질이 높게 평가되어 중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 시즈오까현 미나미이즈지역 : 메라지구는 어업과 함께 어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박업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관광협회의 주도로 민박 지역 전체를 하나의 호텔과 같이 이

용하도록 하였다. 개별적인 민박과 학교의 홈스테이 장소로 활용하여 학생과 민박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 시즈오까현 아이즈어항 : 스루가만 해양심층수를 어항 내 수산물처리장의 세정, 활어수송 등에 활용하였고, '스루가만 심층수 브랜드마크'를 만들어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2006년 7월에 오픈한 심층수체험시설을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하였다.

▷ 야마구치현 하기시 미시마 : 미시마는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업과 어업의 1차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섬의 바다를 활용하여 어업과 관광을 일체화시킨 체험형 관광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였다. 지방어협에 위탁하여 다이빙시설을 관리하고 어업자는 다이빙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섬을 찾는 숙박객이 증가하였다.

## 해업: 어업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면적 진흥



쿠로사와 카오루(黒澤 馨)  
어항어장어촌기술연구소  
제2조사연구부장

해업(海業)은 ‘어업에서 마린 레저까지 바다·해변을 이용하여 성립되는 여러 가지 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업(海業)을 통해 어업 및 어업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어업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어업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례]

- ▷ 어업·어로: 북해도 베카이쵸 노트케어 협의 역사·문화 전승, 후쿠이현 미하마쵸 뉴우어협 어업체험학습, 오사카부 타지리쵸 타지리어협의 해양 레크리에이션
- ▷ 생태계: 코지현 토사시 우시어협의 생태계 해양레크리에이션, 북해도 베카이쵸 노트케어협의 생태계 체험
- ▷ 어촌: 교토부 이네쵸 이네, 이바라기현 북이바라기시 오츠의 역사·문화 전승

- ▷ 유통·판매: 치바현 초시시 초시시어협 토가와지소, 가고시마현 나가시마쵸 등 수산물 브랜드화,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에구치어협, 치바현 교난마치 호타어협의 직판시설과 어식시설 등
- ▷ 대부망과 지예망 체험: 후쿠이현 미하마쵸 뉴우어협에서 도시어촌교류를 목적으로한 어업체험 실시
- ▷ 지역수산물 직판시설과 어식레스토랑: 가고시마현 하오키시 히가시이치키쵸에서 수산가공공장 개축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해안환경정비사업 전개
- ▷ 어촌 전통문화: 이바라기현 키타이바라기시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히타치오오즈 배죽제와 추석선 등의 전통 문화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 ▷ 바다자원: 시즈오카현 아이즈시에서는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활용한 온천시설과 수산물 직판 시설 정비
- ▷ 어장보전을 목적으로 한 식수: 노츠케만 어장 보호를 위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식수운동’ 개시, 풍력에 의한 우타세이미어업 등으로 관광객 유치

## 일본의 수산관계시설 재해복구사업의 개요



사노 후미토시(佐野 文敏)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재해사정관

수산관계시설의 재해복구는 ‘공공토목 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및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재해’는 폭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를 말하며, ‘재해복구사업’은 재해에 의해 필요한 사업, 재해 발생 시설을 원형으로 복구시키는 것 또는 대체 시설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의 대상시설은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 수송시설을 포함하는 어항시설과 해안시설이며, 국고보조율은 재해복구사업비 및 당해지방공공단체의 당해연도 표준세수입에 의해 다르지만 기준은 2/3이다.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은 연안어장정비개발시설과 어항시설 등을

포함하는 어업용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며, 국고보조율 기준은 어업용시설이 6.5/10, 공동이용시설이 2/10이다.

재해관련사업은 크게 ‘어항관계재해관련사업’, ‘재해관련어업취락 환경시설복구사업’, ‘재해관련 긴급대규모표착유목 등 처리대책사업’으로 나뉜다.

어항관계재해관련사업은 부담법에 의해 재해복구사업으로서 채택한 시설의 재해 방지 및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 국고보조율은 5/10이다.

재해관련어업취락 환경시설복구사업은 부담법 또는 잠정법에 의해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동일어항구역 내에서 동일한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어업취락환경시설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공사를 뜻하며, 어업취락배수시설, 수산음압용수시설, 녹지 광장시설, 방재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국고보조율은 5/10이다.

재해관련 긴급대규모표착유목 등 처리대책사업은 홍수, 태풍 등에 의한 표착물이 해안보전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 긴급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5/10이다.

## 해업과 수산시스템의 관계 추구



사에키 키미야스(佐伯 公康)  
수산종합연구소 수산공학  
연구소 수산토목공학부 연구원

근대적인 어항이 출현하기전의 일본의 어촌은 천연적인 지형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배를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곳에 형성되어 해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며, 작업, 가사, 축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나 20세기 후반, 국제적인 어업규제, 수질 악화, 수입수산물의 증가 등에 의해 수산업의 생산량은 저하되고 어업인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어항공간의 이용 상황이 변화된 사례로 다음의 두 지역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동북지방에 있는 인구 24만명의 아오모리 하치노

헤시는, 긴 역사를 가진 수산도시이다. 20세기전반, 어항정비를 추진하여 해안에는 3개의 어시장이 형성되었고 현재 연간 16만 톤의 수산물을 양륙하는 수산가공업이 번성하고 있다.

국도변의 어항인 호타어항은 1995년부터 어업협동조합에서 관광객 대상의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정치망, 채낚기, 자망 등으로 잡은 물고기를 회, 해물찜, 생선구이로 제공하는 소박한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수산업은 해역으로부터 소비자까지의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어항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시키는 접점으로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항은 어획물을 양륙하는 수산물 유통의 거점이자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어메니티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어획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항공간의 가치 재발견이 필요하다.